



4면  
전주 호동골 정원  
명품정원으로 거듭

# 전주매일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음 5월 6일) 제25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도 “상선약수 지혜모아 예산확보 전력”

### 정부 신규사업 억제감안 기재부 등 릴레이 방문 지휘부 총출동 ‘구슬땀’

전북도가 지휘부를 중심으로 전 실국이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힘 없이 빈 곳을 채우는 최상의 선인 물과 같은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지혜를 모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도는 삼라농업농생명산업,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자존의식 고취 등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25일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 주요 인사를 방문 면담,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전국 유일 홀로그램 지원기관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등과 연계, 홀로그램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건립비로 33.5억원, 전기자동차 배터리스스템 개발비용 절감 및 기간단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활용체계 구축’ 사업비로 60억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 익산 왕궁 정착농원 미 매입 잔여 현업축사의 기속분노 배출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비’ 200억 반영,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건설기계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3차추경에 1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김경희 행정예산심의관과 만남에선 대한민국 대표 법조인으로 추앙받는 법조삼현이 지켜낸 법의 참뜻을



‘태극기 앞에 만세 삼창’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들은 25일 전 보훈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기리기 위해 구전주법원,검찰청 부지에 ‘전주 로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 반영을 건의했다.

끝으로 한훈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업산업프리가 마련되어 있는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산업을 벤처창업패키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58억원 반영과 수산 양식업의 미래산업인 ‘힐다리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 추진을 위해 운영비로 8.4억원 반영을 피력했다.

전북도는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정부안 최대 예산 확보를 위해 도, 시, 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등이 기재부 등 부처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26일에는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상직, 윤준병 의원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국가예산 담당자가 참석, 중점확보 국가예산 사업 등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7월에는 정경,현안사업에 대해 지역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협의의 대응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재난안전 관리 ‘전국 최고’

### 행안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6억원 확보

재난안전 관리 수준이 전국 최고임을 전북도가 입증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를 인정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년간(2017~2019)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린 전북도는 그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모든 평가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지

체를 직접 방문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단계별 재난 관리실태 39개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예방분야에 대한 비중을 최대 39%까지 확대,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처음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평가에 비중이 확대된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 운동,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기후재난대비, 국가안전대진단 등 주요 국가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민선 7기 도정지표 중 으뜸지표로 설정해 현장 평가시 직접 인터뷰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의 재난관리

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사람의 최우선으로 현장·예방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역점시책(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도민이 편안한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더 빠르고 든든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도 한몫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상황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한발 빠른 대응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장애인복지관 13곳 검토 후 긴급 돌봄 재개

### 1:1 개별 재활치료프로그램 등

전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전면 휴관조치 했던 장애인복지관 13곳에 대해 지자체 검토 후 긴급 돌봄에 한해 우선 문을 여는 방침을 알렸다.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권고와 전북도의 선제적 예방 조치에 따라, 도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은 문을 닫아 왔다. 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가정의 괴로와 돌봄 사각지대 폭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사업 일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서비스는 1:1로 진행되는 개별 재활치료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되는 일부 체육관 이용 등 활동 프로그램이다. /유호상 기자



신원식 윤여일

### 도, 올 하반기 승진 내정자 발표

###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

### 윤여일 예산과장 국장급 승진

전북도가 25일 올해 하반기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승진 내정자는 총 177명으로 국장급 2명, 과장급 18명, 팀장급 35명, 6급 이하는 122명이다. **(과장급 명단 15명)**

이들 중 국장급에서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45)과 윤여일 예산과장(57)이 승진 내정됐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김제 출신으로 2007년 행정안전부 공직에 입문해 미래산업과장, 외교부 주뉴욕대 한민국총영사관 등을 역임했다.

정읍 출신인 윤여일 예산과장은 1983년 정읍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과장관과 무주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제11대 전주시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협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230-3713)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